

작되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세가지 色狀을 띤 石材로 나타나게 되었는데는 분명하지 않다.

또 한가지 注目된 것은 文樣을 浮彫한 石材와 그리 많은 數는 아니지만 거치른 彫法으로 刻字한 石材와는 아주 다른 것 같이 보인다. 점이다.

이로서 보면 強調되어야 할 部分과 餘他部 部分과의 區別이 있어 注力되어야 할 部分에는 石材나 筆生이나 刻匠이나 最善의 것을 動員하고 餘他部分에는 次善의 것을 움직인 듯한 印象을 받게 된다.

石經의 內容은 華嚴經의 經文을 全部 收錄한 것인데 禹貞相教授는 破片의 一部에서 海印寺藏八萬大藏經中 華嚴經板의 文句와 同一한 것을 여러가지 가려내었다.

文樣은 浮彫한 것과 線刻인 것의 두가지 종류의 破片을 볼 수 있었는데 浮彫한 것은 破片이 너무 적고 線刻인 것은 아주 호러 繪畫된 內容이 무엇인지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추정컨대 寫經卷頭變相圖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은 佛界에 대한 描寫 그것과 흡사한 듯이 느꼈다.

石經製造當時에도 臣大한 石材를 使用하여 刻字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고 지금 破片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마치 方塘과 같은 모양의 薄石을 수 없이 이어서 하나를 완성하였던 듯하다.

石片을 서로 연결시키는 方法도 여러가지 있는지 이번 調査에서는 마구리 가운데 아래부분 文樣材 등 그 位置에 따라 이음방법이 다르다고 보여지는 바가지 方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바가지 方法에서 共通點을 찾자면 位置에 따라 각기 홈을 파서 隱具를 끼우게 된點인데 不幸히 隱具에 대한 知見은 얻지 못하였다.

石經石中 鍍金된 部分이 있었다 하나 이번 調査에서는 發見하지 못하였다.

覺皇殿前石燈工事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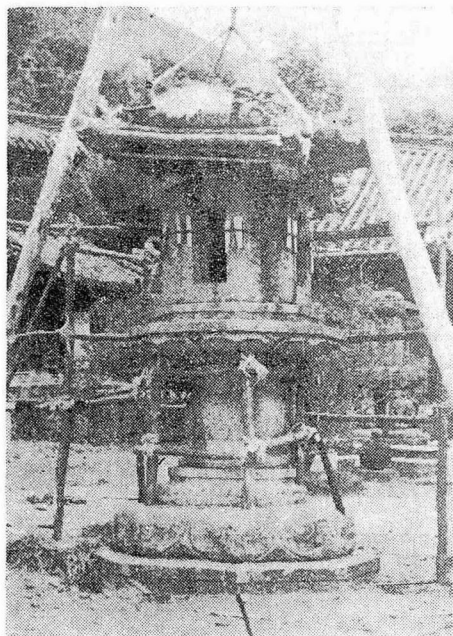
申 榮 勳

華嚴寺 補修工事의 一環으로 覺皇殿前의 石燈을 重修하였다. 今番 補修工事의 內譯은 石燈을 重修하는 外에 林泉監督官으로 覺皇殿과 圓通殿의 지붕을 飜瓦하였다.

石燈工事는 一九六一年 九月 七日부터 着工되었는데 그 解體는 九月 十日에야 착수되었다.

相輪部의 部分石, 蓋石, 一枚, 四裂된 火舍石이 하나로 네쪽난 中台石도 죄여서 한돌처럼 竿石 下台石이 한돌씩 차례로 나려지고 埋沒된 地台石을 露出시키므로써 解體는 끝이 났다. 基礎는 地下로 約三尺 하고 雜石을 채운 후에 콘크리트 하였다.

地台石은 돌 빗으로 짤여진다. 南北에 커다란 돌을 놓고 東西에 작은 돌을 짤아 막음질하였다. 그중 北쪽의 돌은 다른 세 돌과 좀 다른 점이



있다. 돌밖으로 眼象을 새겼는데 이 돌에는 그것이 없고 區劃한 刻線도 나머지 돌들과 어림못할 뿐 똑 들어맞지 않는다. 똑 들어맞지 않는 점은 이것뿐만 아니고 八角各邊의 길이도 제각기이다. 네 돌을 짙는 법도 일정하지 않고 그 이음부분이 돌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되었다. 再造立하면서 예를 배운 것도 이 地台石인데 彫刻된 線을 맞아 짙으면 水平이 안맞고 水平을 맞추면 이음부와 彫刻線이 서로 다르게 된다.

石燈은 現位置로 봐서 建物과 마찬가지로 東側이 前面일터인데 常識 밖으로 北面에 裏部를 만든點 등 수공되지 않는 점이 있다.

차츰 造立하여 가면서 의혹은 더 짙어졌다. 下台石까지 분명히 水平을 맞추어 놓고 몇번씩 확인을 하였는데도 竿石을 놓고보니 水平이 맞지 않는다. 方向이 달라졌나 봐도 解體時 表示한 方向表示는 틀림없이 同一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實測値를 再三確認하여도 대략 八邊이 같은 높이인데 알수 없는 노릇이다. 原點으로 다시 돌아가 높이를 細分하여 또다시 實測하였다. 그때 北側의 中間(角과 角의 사이)이 약 五分 높은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 外面의 邊은 일정한 높이이지만 안으로 접어짜는 부분의 한점이 후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그것이 下台石의 불룩한 部分에 얹혀서 키를 높인 것이다. 八角의 모를 맞추어 짙는 것이므로 달리 틀어놓 수도 없는 그러한 것에 이러한 難處가 伏在하고 있을들은 想像以外的 일이었다. 解體時 괴입의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온 것과 가는 龜裂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였다. 火舍石과 中台石의 接合處에도 이러한 突起部가 있어 고장이 난곳이 있다. 이는 아무리 하여도 만들어질 당시부터 그랬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런 실수를 무엇 때문에 저질렀을까 瓶建當時라면 正질 몇번이면 편하게 늘 수 있는 것을 왜 내버려두었을까 후시 後人이 石燈을 補修하고 그때 瓶建時의 方向을 잃어 그런 흠이 숨겨지던 곳을 잊었던 것일까.

석연치 않은 점을 그대로 둔채 組立은 계속되었다. 竿石의 흠을 없애고 中台를 놓으니 水平이 똑 들어 맞는다.

火舍石은 四裂되어 있으므로 더 破裂되지 않도록 靱쇠로 補強하였다.

上下面에 각기 네개의 靱쇠를 박기 위하여 여덟구멍을 뚫는데 불먹은 돌이어서 그런지 생곳에 금이 가지 시작하여 깊이 파는 것을 中止하고 이 미 파놓은 구멍을 利用하기로 하였다.

火舍石에 蓋石을 덮고 露盤과 仰花, 寶珠 등을 올려 놓아 造立을 끝내었다(九月十八日竣工)

火舍石을 올려놓기에 앞서 中台石上面에 重修記錄을 墨書하였다.

竣工을 끝내고 도면저 품었던 의혹은 가지지 않았다. 重修하게 된 원인은 石燈이 北西側으로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造立하면서 보아도 이 北西側이 늘 말썽이었다. 地台石이 그렇고 竿石도 그렇고 火舍石도 그러하며 蓋石도 또한 그렇다 地台石은 後補物에 가깝다고도 보여질만한 돌이고 竿石은 흠이 있으며 火舍石은 불을 몹새 맞은 것 같고 蓋石은 귀꽃 등 파손이 심하다. 그런데 또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丈六殿 覺皇殿이 壬辰倭亂時 燒燼되었던 것만은 事實이다. 이 거대한 건물이 불에 탈때 石燈에 어떤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 때문에 부득이 重修하여야만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나 아닐까 또 그以前인 고려때쯤에서라도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거나 않았을까 그때 地台石을 交替하여야 되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의문은 대부분 그 해답을 얻게 된다.

寺内の 石塔과 石階 등 石造物을 言必稱 新羅統一期の 作品이라고 한다. 大部分의 遺物을 調査하고 찬찬히 되살피 볼 수 있었던 이번 기회에서 筆者는 몇가지 의문을 느꼈다. 大雄殿前庭의 雙塔과 石壇及 石階의 現品이 모두 新羅統一期の 作品이라 할 수 있을까. 東西塔의 手法은 高麗時代 作品이라고 斷定된 作品들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의문부를 부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거나 않을까. 이 石燈도 新羅創建이 후 여러차례 손질되었던 것으로 推定하여 본다.

이 工事を 進行하는 동안 現場에서 敎示하여 주신 故林泉氏靈前に 默念을 드린다.